

“함께 만드는 영광, 군민 행복·민생안정 최우선”

올해 새해설계

장세일 영광군수

e-모빌리티 등 미래 선도 전략산업 육성 ‘박차’ 농가소득 증대·경영 안정 도모...관광 소비 촉진도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이라는 군정 구호 아래, 군민 행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군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지속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의 여파로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비를 되살려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성장 동력을 강화해 영광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영광군은 전 군민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기본소득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맞춤형 경영안정 지원, 묘량농공단지 기업 유치 등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미래를 선도하는 전략산업 육성에 도 박차를 가한다. e-모빌리티 수출 지



원, 투자선도 지구 기반 시설 조성 등 정수소 산업 육성, 무탄소 에너지 실증

연구단지 구축 등 스마트 모빌리티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군민 햇빛바람 에너지 연금’ 지급을 위한 단계별 이행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 군민 평생 연금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어르신 복지도 한층 강화한다. 어르신 건강관리, 돌봄, 문화·여가 시설을 아우르는 영광형 보건·복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경로우대 목욕 이용권과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효행 수당 지급, 공공 일자리 확대, 틀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청년육아나눔터 운영, 어린이 축제와 영광형 키즈카페 조성 등 온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가족 친화도시 조성에도 힘쓴다.

지속가능한 농·수·축산업 육성을 위해 주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과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해 기후변화와 재해에 대비한다. 스마트팜 기반 조성 등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 설립을 통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가공·산업화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도 주력한다.

스마트 축산과 안전 축산물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산림자원 육성과 수산물 가공·유통기반을 확충해 농어민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종교 순례 테마 관광 명소화 사업, 백수 해안 노을 관광지 조성, 볼갑사 관광지 확장 등 관광 기반 확충,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관광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영광 문화예술촌 운영과 묘량 파크골프장 개장, 스포츠센터 운영 등 군민 건강증진과 문화·체육이 공존하는 활기찬 영광을 만든다.

장세일 군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살고, 군민 각자의 삶이 빛나는 영광을 만들기 위해 힘써 뛰겠다”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군정에 혁신을 더하고 군민과 함께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영광=김동규기자

영암군, 민생안정·지역경제 회복 ‘전력’

지역상품권 확대 발행·소상공인 지원 강화

영암군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5일 영암군에 따르면 내수 부진 장기화, 고금리 지속, 국내·외 정치·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한 지역민의 어

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먼저, 영암군은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영암사랑상품권을 전년 대비 100억 원 확대 발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설명절이 있는 1월, 20% 적립 이벤트를 시행

하고, 카드 구매 한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3월부터는 영암사랑상품권이 지역순환공공플랫폼으로 새롭게 확장된다. 영암군민의 요구에 부응해 종이 상품권을 부활하고, 상품권에 관광·기부·환경·교통·배달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더한다.

영암사랑상품권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지역의 사회·문화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순환경제를 견인하는 구심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5천만원 이하 대출금 4년간 연 4% 이자를 뒷받침하는 ‘대출

이자 지원’, 주말 상가 영업 장려하는 ‘오픈 상가 지원’, 대표음식점의 인지도를 높이는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을 포함해 ‘공공요금 지원’ 등에도 나선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 등 경제 주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며 “영암군민 먼저, 지역 상권을 적극 이용해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따뜻한 소비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목포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화장장 사용료 면제...확대 운영

목포시는 5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목포시가 마련한 목포역 광장 합동분향소에 목포시민들의 발걸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에서는 목포시에 주소를 둔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 필요물품 확인·지원, 장례절차 안내, 희생자 관련 행정처리 지원을 위한 1대1 전담팀을 2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례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목포 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에서도 목포시에 주소를 둔 희생자의 화장장 사용료를 전면 면제하고, 사고 희생자를 대상으로 화장료를 하루 9차례 긴급 확대 운영 중에 있다.

목포시는 목포에 위치한 장례식장에 안치된 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화장절차를 안내하고 화장 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희생자 화장 사전 예약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사고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가능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목포 시민은 14명이 희생됐으며,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목포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는 오는 10일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목포=정해선기자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추모

온라인 부고 운영 등 행정 지원 강화

무안군은 5일 “지난 3일 김산 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이 무안스포츠파크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와 공무원들은 한화와 목련을 통해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전남 자정에 종료된 국가애도기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추모의 뜻을 전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무안군은 직원들을 투입해 사고 수습과 피해자 가족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현장상황실 10개 반 27개 부서를 중심으로 ▲피해자 가족 1대1 통합지원 ▲응급의료소 운영 ▲합동분향소 관리

▲식사 및 장례 지원 ▲구호 물품 관리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일까지 무안스포츠파크 합동분향소에는 총 1만2천310명이 방문했으며, 희생자 42명이 장례식장으로 이송됐다.

또한 유가족 요청에 따라 ▲무안군 홈페이지 온라인 부고 운영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방문 접수 ▲유류품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일괄 발급 등 행정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들이 빠르게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기자



김산 무안군수가 무안스포츠파크 합동분향소에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며 향을 피우고 있다.

<무안군 제공>

해남 현산천, 하류부 정비 사업 확정

도시설계 추진...현산천 10.3km 구간 정비

해남군의 주요 지방하천인 현산천의 하류부 미정비 구간에 대해 본격적으로 정비에 들어간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남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통해 현산천 중점인 백포 방조제부터 상류 방향 5.89km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가 시작된다.

또한 도 개선복구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읍읍 소하천 합류부부터 1.3km는 해남군에서 사업을 추진 중으로, 구시 저수지부터 백포 방조제까지 현산천 10.3km에 대한 구간정비가 가능하게 됐다.

현산천은 현산면 관내 4개의 지방하천인 고희천, 구산천, 조산천, 월송천이 합류하는 큰 하천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다만 정비가 되지 않아 2021년 집중호우 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어 현산천 중·상류부와 조산천은 개선복구사업으로, 구산천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 정비를 추진해 왔다.

특히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현산천 하류부에 대한 정비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하류부 제방 범람 등 재해 위험에 대한 주민 걱정도 한결 덜게 됐다.

해남군은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하류부 정비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협의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숙원으로 남았던 백포 방조제 배수개선사업도 가능하게 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현산천 하류부 정비공사 확정은 현산천과 연결된 지방하천의 치수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재해 걱정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백포 방조제 배수개선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기자



완도 고금 덕암산에 생태공원 조성

20억 투입...숲속 무대·유아 생태 놀이원 등

완도군은 5일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생태 휴식 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0억원을 투입, 고금 덕암산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환경을 활용해 주민에게 휴식과 힐링할 수 있는 치유 공간을 제공하고자 고금 덕

암산 일대에 숲속 무대, 유아 생태 놀이원, 오색 초화원, 숲속 오두막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조감도> 주민들이 이른 오전, 늦은 오후에도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10월 완료된 실시설계를

비탕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보통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군에서는 전남도를 찾아 적극 건의해 예산을 2개년으로 확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이번 생태 휴식 공간 조성사업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적 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신안군, 보호수 10개소 정비 완료 보호수 건강·주변 환경 개선 초점

신안군은 5일 “관내 10개소의 보호수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무의 부후균 제거를 위한 외과수술, 위험 가지 제거, 주변 잡목 정리 등을 포함해 보호수의 건강과 주변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보호수와 노거수는 그 빼어난 자태로 한 그루만 있어도 주목을 받는다. 또한 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추억이 깃든 사랑방 나무로, 그 존재만으로도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신안군 내에는 팽나무 96그루, 소나무 7그루, 느티나무 5그루 등 총 117그루의 보호수와 수령이 오래된 당산목, 풍치목, 정자목 등 82그루의 노거수가 관리되고 있다.

신안군은 보호수와 노거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또한 ‘1004섬 보호수 이야기 I·II’와 ‘1004섬 당산나무 이야기’를 발간해 문화적 가치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를 통해 신안군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신안=양홍기자